

- 주요 뉴스: 미국 빅테크 분기실적 발표, Tesla 예상치 큰 폭 하회, Alphabet은 예상에 부합
 - 미국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
 - ECB 부총재, 금리인하 여부 판단은 9월이 적절, 금리인하 신호로 해석
 -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 일본은행의 보다 명확한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를 기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빅테크 실적 경계감, 대선 전망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1%], 금리 약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SAP 등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
유로화 가치는 0.3% 하락, 엔화 가치는 0.9%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6월 기준주택판매 부진에 따른 영향 등으로 약보합
독일은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6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3.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5.9원, 0.01% 하락). 한국 CDS 하락

		7/23일	7/22일	전일대비			7/23일	7/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555.7	5,564.4	-0.16%	국채 금리 10y	미국	4.25%	4.25%	-0bp
	유럽	515.47	514.79	+0.13%		독일	2.44%	2.50%	-6bp
	중국	2,915.4	2,964.2	-1.65%		영국	4.12%	4.16%	-4bp
	일본	39,594	39,599	-0.01%	CDS 5y	한국	35bp	36bp	-1bp
	한국	2,774.3	2,763.5	+0.39%		중국	62bp	64bp	-2bp
환율	달러지수	104.43	104.31	+0.11%	위험 지표	EMBI+	-	404	-
	유로화	1.0854	1.0891	-0.34%		VIX	14.72	14.91	-1.27%
	엔화	155.59	157.04	+0.93%		WTI유	76.96	78.40	-1.84%
	위안화	7.2748	7.2738	-0.01%	원자재	구리	414.6	418.1	-0.83%
	원화	1,386.1	1,388.2	+0.15%		금	2,409.6	2,396.6	+0.5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빅테크 분기실적 발표, Tesla 예상치 큰 폭 하회. Alphabet은 예상에 부합

- 기업들의 분기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가운데 빅테크 중에서 Tesla와 Alphabet이 해당 실적을 공개. Tesla는 주당순이익이 0.52달러로 예상치(0.62달러)를 크게 하회.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7% 급락. 매출의 경우 255억달러로 예상치(247.7억달러) 상회했지만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2%에 불과
- Tesla는 미국 내 전기차 매출 1위 자리를 유지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 특히 매출 증가를 위해 할인판매를 확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
- Alphabet의 경우 주당순이익은 1.89달러로 예상치(1.84달러)를 넘어섰고, 매출 역시 847.4억달러로 예상치(841.9억달러) 대비 높은 수준. 세부적으로는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예상치 대비 양호했고, 유튜브 광고 매출은 상대적으로 부진. 주가는 0.1% 상승으로 마감했으나 시간외 거래에서 1.4% 하락
- 한편 자동차업체 GM은 주당순이익과 매출이 3.06달러와 480억달러로 예상치(각각 2.75달러, 455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전기차 전환 지연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등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6.4% 하락으로 마감
- FactSet에 따르면, 빅테크 가운데 Nvidia, Amazon, Meta, Alphabet 등 4개 기업의 2/4분기 이익이 전년동기비 56.4% 늘어나 S&P500기업 전체의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할 전망. 반면 이를 제외한 496개 기업의 경우 5.7%에 그칠 것으로 추정. S&P500 기업 전체의 이익증가율은 9.7%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

-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공식 후보로 지명되기를 원한다고 발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하원 원내대표 역시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대선 관련 Reuters/Ipsos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으나(지지율은 각각 44%와 42%), Morning Consult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지지율은 각각 45%와 47%)

■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 전월비 감소. 다만 금리인하 가능성 등 긍정적 신호 존재

- 6월 기존주택판매(연환산)는 389만채로 전월(411만채) 대비 줄었으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부진 등에 기인.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의 공급 여건 개선과 모기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에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Oxford Economics)

■ ECB 부총재, 금리인하 여부 판단은 9월이 적절. 금리인하 신호로 해석

- 권도스 부총재는 9월까지 추가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것이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26년까지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을 9월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 이스라엘 총리,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재개 지시. 군부대는 일부 가자지구에서 철수

-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재개하도록 관련 인사들에게 지시했고, 이스라엘 군은 가자의 일부 인구밀집 지역에서 철수를 명령. 이집트 등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 및 인질 석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발표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 요건 완화. 우량채권 공급이 목적

- 증권시보는 인민은행이 MLF의 담보 조건을 완화했고, 이는 최근 채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량채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 당국에서는 이번 조치로 우량채권 공급이 확대되어 국채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 일본은행의 보다 명확한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를 기대

- 모테기 간사장은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보내야 한다고 주장. 이번 발언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직접적 압력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으나, 중앙은행의 극단적인 저금리 유지에 대한 정치권 실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4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먼 이사 발언, 미국 7월 S&P 글로벌 종합 PMI 및 6월 무역수지
- 미국 6월 신규주택판매 및 도매재고, 유로존 7월 HCOB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카말라 부통령, 바이드노믹스 계승 가능성은 인플레이션 위험 내포 - The Economist

(Kamala Harris carries the torch, and the burden, of Bidenomics)

-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제조업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 등에 중점을 둔 바이든의 경제 정책(바이드노믹스)을 이어갈 전망. 한편 사회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공공복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또한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 감독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
- 다만 이러한 경제 정책이 바이드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점은 잠재적 위험 요인.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으로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또한 팬데믹 당시 카말라 부통령이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판 역시 극복해야할 과제

■ 미국 주택시장의 락인(lock-in)효과, 재고 증가와 금리인하 기대로 완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I Gave Up a 2.6% Mortgage to Upgrade. Will I Regret It?)

-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은 과거 초저금리로 융자한 장기 모기지 상품을 보유. 이에 현재 고금리 여건에서 이사 혹은 신규대출에 나설 경우 고비용이 예상. 관련 영향으로 기존주택 재고는 '19년 대비 약 1/3 수준에 불과
- 하지만,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정책은 잠재적 주택 거래자들의 인내를 자극.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존주택의 재고도 점차 증가. 이를 고려할 경우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회복이 예상. 다만 의미 있는 금리하락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택경기 회복은 완만한 형태를 나타낼 전망

■ 선진국 경제, 기술발전을 통한 성장 정체 탈피 가능성은 긍정적 요소 - Financial Times

(Why I am now optimistic that economies can break out of a rut)

- 오랫동안 선진국은 낮은 성장과 취약한 재정 여력으로 경제적 편익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어려움이 가중. 하지만 선진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보다는 단기 성장을 위해 금융 서비스에만 집중
-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생명과학,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혁신이 발생.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직간접적인 형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특히 미래의 리더십은 분절된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서로의 윈-윈(win-win)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미국 소형주 강세, 증시 판도 변화 예고에도 지속 여부는 불확실 - Financial Times**

(The end of the Omnitrade)

- 그동안 소수의 대형주가 증시를 주도하는 옴니트레이드(Omnitrade)가 성행했으나 최근 소형주 투자가 급격히 증가. 이는 물가상승 둔화와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소형주가 금리인하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 또한 헤지펀드가 대형 기술주의 차익을 실현하고 소형주 투자를 늘리는 경우도 증가
- 다만 일각에서는 중소형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을 제기. 실제로 최근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60개 기업들의 자기자본 수익률과 수익 전망치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아울러 지난주 소형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증가

■ **미국 재정문제, 공화당은 부채와 사회보장 등에서 합리적 해법 제시가 요구 - 블룸버그**

(Conservative Fiscal Hawks Have Flown the 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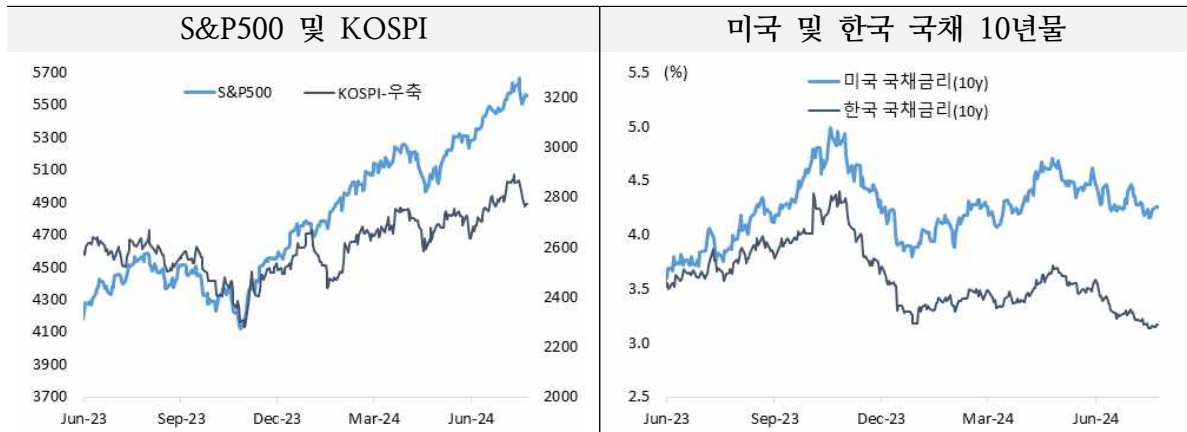
■ **미국 일부 금융기관, 자본비율 최적화 필요하지만 실익 없는 기법 도입은 불필요 - WSJ**

(Lenders Tout a New Way to Transfer Risk, but Why Bother?)

■ **중국 경제, 구조적 문제 등으로 금리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 블룸버그**

(China Rate Cut Steals Plenum's Muffled Thu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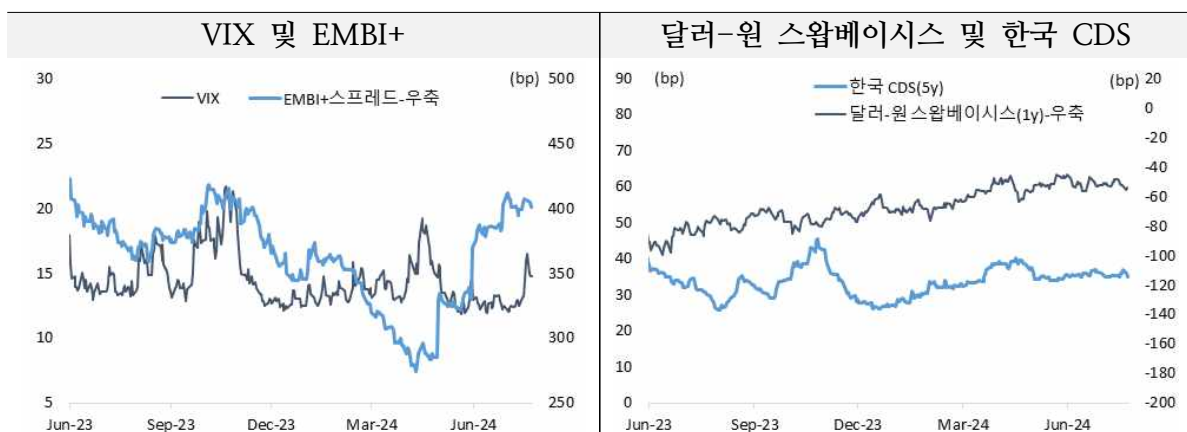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